

양가성 인정하는 그로테스크 미학의 세계

한화정보통신의 '마이크로 아이'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섬뜩하고 낯선 광고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문구는 의도적인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는 꽤 그로테스크하다. 이 광고가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연원은 양가성에 있다. '작고' '어린' 사람이 보여주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그 무표정한 가면에 생성과 적멸이라는 이원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롤랑 바르트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일본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호사스럽게 취사선택된 앨범'이라 일컫는 그의 저서 《기호의 제국》(민음사)은 그 혐의를 짚게 한다. '왜 하필 일본이냐'는 미성숙한 민족주의 감정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문화를 기호로 읽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 그 텅빔과 공허함을 다루며 궁극적으로 글쓰기를 자문하는 통찰력과 글의 유려함은 감탄스럽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의 연극적 얼굴(노[能]의 가면, 가부키의 분장, 분라쿠의 인형)에 관한 바르트의 묘사다.

이 책을 얘기하다 보면 얼굴·가면이 등장하는 광고 한편이 떠오른다. 낮고 쓸쓸한 하늘과 들판을 배경으로 스산한 허밍이 들리는 광고. 목각인형같은 가면을 쓴 아이가 웃고 있다. 아이를 바라보는 검은 깃털 옷의 여인, 어디론가 달리는 아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마치 영화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에 나오는 기마동상처럼 회전목마에 아이가 앉아 있다. 이 섬뜩하고 낯선 광고는 국내 최소형 단말기라는 한화정보통신의 폴더형 전화기 '마이크로 아이(micro-i)' CF다. 카피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 영문 t를 우리말 '아이'로 읽으면 이 카피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 이런 기표의 장난은 이 시대에 만연해 있다. "너는 왜 말이 없니?"라는 질문에 "여기가 경마장이예요? 말이 여기 왜 있겠어요?"라고 답하는 세상이니 뭐 시비 걸 일도 아니다.

이 광고는 상당히 그로테스크하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느낌과 거부감을 주지만 결코 그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전체적인 톤과 각각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괴기스런 느낌을 자아내는 중심은 아이의 얼굴, 가면에 있다. 롤랑 바르트의 글에 따르면 이 얼굴, 가면은 두가지 재료를 대표한다. 즉 종이의 흰색과 글의 검은색이다. 이 가면적인 얼굴은 채색되지 않은 색채고, 의미를 지운 변형이다. 얼굴의 흰색은 피부의 색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있던 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텅빈 자리를

만든다. 이는 입체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서양식 화장술과 조명의 사용과는 정반대다. 순진하기보다는 둔중해 보이는 백색의 얼굴은 마치 설탕처럼 역겨울 정도로 뻑뻑하다. 이 얼굴은 부동성과 연약성이라는 두가지 모순되는 움직임을 동시에 기호화한다.

이 광고가 자아내는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근원은 바로 이런 양가성이다. '작은' '어린' 사람이 보여주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 무표정한 얼굴에 생성과 적멸이라는 이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바흐친의 말대로 그로테스크는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숭고한 것과 저열한 것 사이의 전도·혼합과 카니발의 시공간이다. 그 상향성과 하향성은 문학에서 이제 만화·영화·광고 등 현대의 모든 문화에 확산돼 더욱 편재하고 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지금까지 《바흐친과 대화주의》(나남출판), 《그로테스크》(서울대학교출판부) 등에서 소개한 바흐친의 라블레 작품 분석과, 박상룡의 작품을 독해한 《소설 읽기



일찍이 바흐친이 말한 대로 그로테스크 미학은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공존하는 카니발적 세계다. 사진은 최근 화제가 된 '마이크로 아이' TV광고의 한 장면.

의 새로움》(이가)에서 탁월하게 분석됐지만, 이제 바야흐로 그로테스크한 영상의 이미지를 새롭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광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석은 자유. 그것은 광고와 수용자 사이의 공간이고 이미지 텍스트의 열린 공간이다. 이 광고가 판매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지만 CF감독 박명천의 상상력이 놀랍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대는 그가 창출하는 이미지와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